2022년 9월
Vol. 16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홍콩경제무역대표부

HONG KONG LINER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기념 이벤트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미니어처 작품 중 하나인 〈빅토리아 하버〉 (축적 1:750)

홍콩특별행정구(HKSAR)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SEOUL

전시 기간 : 2022년 9월 24일(토)부터 10월 3일(월)까지
장소 : 서울 코엑스 동문 로비, 섹터 D
주최 :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전시회는 약 30,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시회이며 과거 중국 본토, 홍콩, 호주, 일본 및 싱가포르 등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홍콩의 소중한 전통과 독특한 문화, 도시 경관 및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홍콩 예술가들이 만든 40여 점의 미니어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미니어처 작품을 통해 홍콩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홍콩 사람들의 긍정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이 만나 조화를 이루고 창의성이 풍부한 홍콩의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나볼 수 있다.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SEOUL 웹사이트)
https://www.hketotyo.gov.hk/korea/kr/miniature2022/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기념 이벤트

홍콩 영화의 새로운 물결

행사 기간 : 2022년 9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일)까지

상영 장소 : 한국영상자료원

'홍콩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홍콩 영화제는 과거 클래식한 홍콩 영화부터 최근 상영작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홍콩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다음의 주옥같은 홍콩 영화를 상영하여 홍콩 영화 산업의 활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1. 〈아버지의 마라탕 (花椒之味)〉, 맥희인 2019
2. 〈12일 (12日)〉, 오브리 람 2021
3. 〈허안화: 행복한 영화 (好好拍電影)〉, 만림중 2020
4. 〈프리티 하트 (心裏美)〉, 테리 응 카-와이 2022
5. 〈내 인생의 햇살 (一路瞳行)〉, 주디 추 2022
6. 〈남인사십 (男人四十)〉, 허안화 2002
7. 〈반변인 (半邊人)〉, 방육평 1983
8. 〈가을 날의 동화 (秋天的童話)〉, 장완정 1987
9. 〈연지구 ('月+因'脂拘)〉, 관금붕 1987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https://www.koreafilm.or.kr/cinematheque/programs/PI_01421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기념 갈라 디너

9월 말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를 주최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기념 이벤트 안내 웹사이트)
https://www.hketotyo.gov.hk/korea/kr/hongkong25A/

해외 입경객 대상 격리 절차 변경

2022년 8월 12일부터 해외(한국 포함)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입경객의 호텔 격리 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되며, 이후 4일간 자택 또는 호텔에서 자가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홍콩행 항공편 탑승객은 사전에 온라인 전자 건강상태 질문서(https://www.chp.gov.hk/hdf/)를 작성하고 항공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탑승수속 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웹사이트)
https://www.hketotyo.gov.hk/korea/kr/

(해외 입경객을 위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안내 웹사이트)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홍콩국제공항, '2022년 올해의 공항'으로 선정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홍콩국제공항은 '에어카고위크(Air Cargo Week)'가 주관하는 '세계 항공화물 어워드(World Air Cargo Awards)'에서 '2022년 올해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 '올해의 공항' 상은 세계 항공 화물 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항공 화물 공급망 업계 당사자와 로지스틱스 업체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홍콩국제공항은 '2022년 올해의 공항' 상을 수상하면서 글로벌 항공 허브로서의 홍콩의 우수성과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제6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출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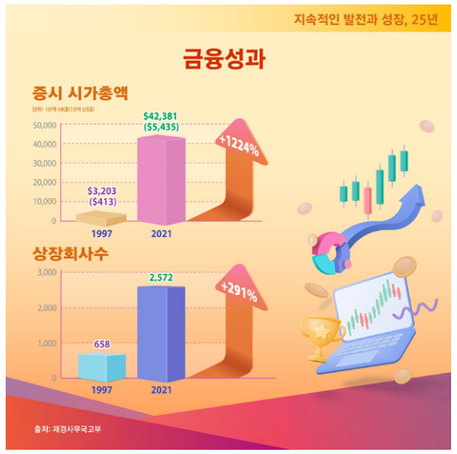
시진핑 국가주석(사진 오른쪽)과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수반(사진 왼쪽)

지난 7월 1일 열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기념 국기 게양식

제6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출범 행사가 지난 7월 1일 홍콩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홍콩을 방문하여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수반과 주요 관리의 취임 선서를 받았다.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25년

지난 사반세기 동안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일국양제'의 원칙 덕분에 도시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또한 주요 경제성장 지표가 모든 분야에서 홍콩 성장의 회복성과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부임

윈섬 아우 대표는 2022년 8월 1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대표부인 홍콩경제무역대표부에 부임했다. 아우 대표는 수석대표 대행을 겸임하며, 홍콩과 한국 간 경제 • 무역 관계, 상호 이해와 협력, 문화 • 관광 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우 대표는 1998년 홍콩대학교를 졸업한 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입부하였다. 아우 대표는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취임 직전, 국제 항공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항공 자유화 협정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홍콩 공항 당국의 공항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아우 대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아우 대표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문화 교류와 레크레이션, 교역 관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우 대표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싱가포르 사무국에 파견되어 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윈섬 아우 (Winsome Au, 歐慧心)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홍콩, '2022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5위 기록

홍콩은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7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순위를 기록하였다.

홍콩은 63개의 경제체 중 '기업관련 법', '공공재정', '조세정책' 및 '국제투자' 분야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홍콩은 단순한 세제, 저렴한 세율 및 원활한 자본흐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로 인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른 중국 본토와의 긴밀한 접근성도 도시의 강점 중 하나이다.

홍콩고궁박물관 개관

홍콩고궁박물관의 외관은 건축가가 자금성에서 영감을 받아 중국 전통 예술과 조화를 이뤘다.

홍콩의 대규모 문화예술 지구인 서구룡 문화지구(The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에 홍콩고궁박물관이 지난 7월 3일 개관하였다. 홍콩고궁박물관은 9개의 전시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고궁박물원으로부터 대여받은 국보로 인정된 국가 1급 문화재를 포함하여 900여 점의 보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홍콩에서 최초로 전시되는 것들이며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보물도 있다. 향후 본 박물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중국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별 전시회 및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문화 예술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hkpm.org.hk

풍경화와 새가 그려진 손잡이 달린 주전자와 밑받침
청 왕조 황실 공방, 건륭 시기 (1736–95)
© Hong Kong Palace Museum

홍콩고궁박물관의 다른 전시품

홍콩 에셋 & 웰스 매니지먼트 사업

글로벌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홍콩의 에셋 & 웰스 매니지먼트 사업 분야는 지속해서 성장하였다. 최근 7월에 발행된 홍콩증권선물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관리 허브로서 선호되는 홍콩의 여러 강점을 바탕으로 홍콩은 아시아에서 총 자산운용 규모, 순자금 유입 및 에셋 & 웰스 매니지먼트 부문 종사자수 모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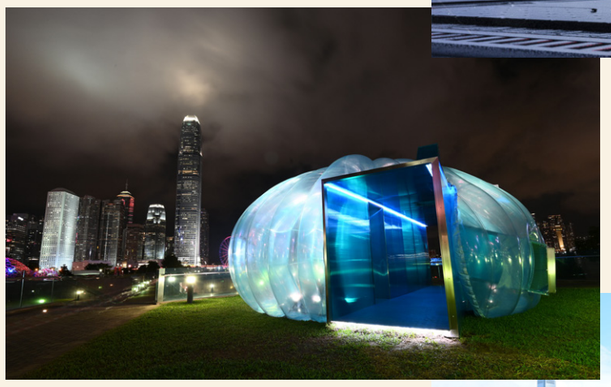
SPOTLIGHT HONG KONG

빅토리아 하버에서 아트테크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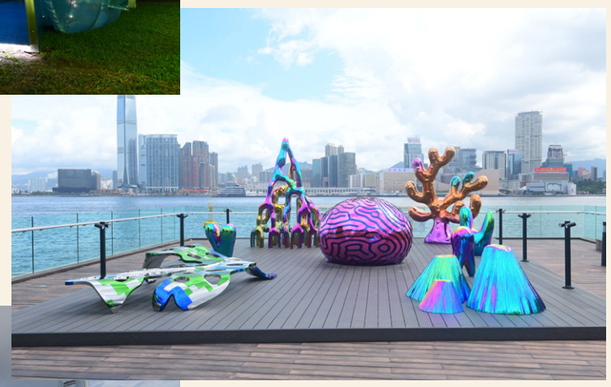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Art@Harbour 전시회를 민간단체와 공동 기획하였다. 빅토리아 하버 산책로에 예술, 과학 및 기술을 함께 접목한 야외 설치 미술품과 디지털 아트 파사드를 선보이는 본 전시회는 오는 12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https://artatharbour.h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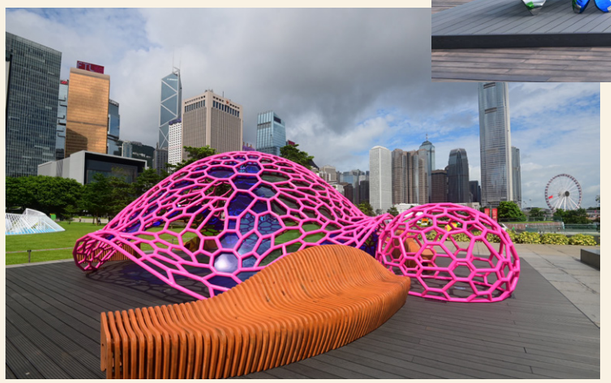
작품 〈Symphony of the Future〉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음악, 음향 및 조각의 다양한 예술의 형태를 경험하여 예술적이고 미래적인 창작물을 수용하도록 했다.



육지와 바다의 연결성을 보여 주는 작품인 〈Water Capsule Submarine〉



다양한 모양과 사이즈의 산호초를 연상케 하는 추상 조각 작품 〈Coral Fractals〉



거북이 등껍질에서 영감을 받은 수학 조각 작품 〈Loving Home〉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 02-2183-3852 (서울 연락사무소) **이메일** : seoul_enquiry@hketotyo.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o.gov.hk/korea